

# 지난해 나라살림 87조원 적자...건전재정 '공염불'

### GDP 4% 육박...관리재정지수 3.9% 지난해보다 1.3%p 높아 52조원 역대급 세수감소 영향...통합재정수지도 36조 적자 기록 국가채무비율 50.4% 관련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 넘어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살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도 스스로 지키지 못한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나랏빚이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00조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악화...세수감소 영향> =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58조2000억원)보다는 약 29조원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p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었던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전년 결산 때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작년 예산안과 비교하면 오히려 크게 악화한 셈이다. 지난해 경기 불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

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총수입(573조9000억원)에서 총지출(610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27조8000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13조1000억원)보다는 약 23조원 많았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1.6%로 작년 예산안(0.6%)보다 1.0%포인트(p) 확대됐다. 총수입·지출은 총세입·세출에 기금 수입·지출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보다 각각 43조9000억원, 71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언한 재정준칙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고물가·내수부진 등 현안에 더해 저출산·고령화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한 과제까지 산적한 현실을 고려하면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9%, 내년부터는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수감소 여파로 총세입·세출 모두 '뚝'>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대 =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원(13.4%) 줄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이 컸다. 이중 국세 수입은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이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공자기금예수금이 줄면서 전년보다 25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출도 세수 감소 여파로 쪼그라들었다. 작년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원(12.4%) 감소했다. 예산 대비 실제 세출 액을 뜻하는 집행률은 90.8%에 그쳤다. 지난해 나랏빚이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00조원대로 불어났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결산(1067조4000억원)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가 109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1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54조3000억원),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예탁(1조1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000억원 늘어난 3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오는 6월 이후 지자체 결산에서 확정된다.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지난해 결산 국가채무는 7조6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나타났다. 전년(49.4%)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롯데건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7일 1순위 청약

### 3개 ब्ल럭 모두 중복 청약 가능 24~26일 3일간 당첨자 발표

롯데건설은 오는 17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 동, 총 2722 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전용면적은 84~233㎡로 다양하다. 단지는 3곳으로 나뉘며 ▲1BL(929가구) ▲2-1BL(915가구) ▲2-2BL(928가구)로 조성된다. 청약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발

표는 1BL 24일, 2-2BL 25일, 2-1BL 26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청약은 3개 ब्ल럭 모두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부부 동시청약도 가능하다. 다만 여러 곳에 청약이 당첨됐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 청약만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단지 청약은 자동 소멸된다. 롯데건설은 청약자 대상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견본주택을 방문하고 청약인증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세계 유명 브랜드 명품가방과 손목시계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중앙공원 분양 관계자는 "총 3번의 청약이 가능한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에서 가장 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인 만큼, 다른 곳과 차별화된 주거 가치와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및 특화설계를

통해 입주주민들에게 높은 주거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대형 호수공원을 품은 차별화된 고급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단지 내 위치한 '중앙공원 1지구'는 9개 민간공원(10개 지구)의 사업지 중 가장 큰 243만5516㎡ 규모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중앙공원 1 지구는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되며 도심형 캠핑장, 정원바람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야외공연장, 호수백사장 등의 시설도 구축된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154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전남농협 영농지원' 발대식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11일 담양군 수북면 일원에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발대식에는 박종탁 본부장, 이병노 담양군수, 최효만 담양군의회 의장, 담양지역 농협조합장, 광주대학교 대학생 봉사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남농협 임직원과 함께 광주대학교 대학생 봉사단 35명은 재능기부와 농촌 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했으며 이후 인근 블루베리 재배농장을 찾아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작업에 손을 보탰다. 박종탁 본부장은 "고령화와 농촌 인구감소로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남농협은 농업인에게 농촌인력증가센터 등을 통해 23만명의 인력 증대를 목표로 영농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아이스 쿨링 시트로 꿀잠 자세요" 1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냉감소재로 제작된 여름이불인 '아이스 쿨링시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25일까지 본관 8층 세사매장에서 냉감시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세사아이스 쿨링시트는 열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고 분산해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쿨링시트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대별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은행권 가계대출 1년만에 첫 감소...전월 대비 1조6000억 ↓

### 전세자금 대출 크게 줄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도시보증기금 정책대출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고, 전세자금 수요 역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예금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해 3월 7000억원 감소한 이후 1년 만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860조5000억원으로 전월에 견줘 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2월 4조7000억원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대폭 축소됐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월 전월 대비 2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난달에는 전월보다 1조7000억원 감소했다. 또 일반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된 기타대출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236조9000억원으로 전월에 견줘 2조1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속적인 신용대출 상환 및 부실채권 매-

상각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지한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정책대출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고, 전세자금 수요도 감소하면서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매달 3조원 가량의 주택도시보증기금 정책대출이 이뤄지는데, 이를 감안하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2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자녀들의 개학을 앞두고 이사 수요가 증가하는 1~2월 증가하고, 3월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신세계 봄별 자외선 차단 제품 선보여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11일 다양한 자외선 차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컨템포러리 서울 뷰티 브랜드인 '헤라'는 'UV 프로텍터 톤업 SPF50+/PA++++' 선크림(50㎖)을 4만5000원에 판매한다. 헤라는 선크림 구매 시 마스크 팩 5매와 클렌징오일 50㎖를 선착순 한정 증정한다. 또 친환경 브랜드로 손꼽히는 '이슬'은 대표 상품 '프로텍티브 페이스 로션 SPF50+' (50㎖)를 7만3000원에 판매한다. 얼굴뿐만 아니라, 모발을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 제품도 눈에 띈다.

'아베다'는 '보태니컬리페어 스트렝스닝 리브인 트리트먼트' (100㎖) 5만5000원에 선보인다. 제품은 모발 안쪽부터 복구, 방지, 보호해주는 3층 레이어링 모발 복구기술과 모발 건조를 방지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UV 필터로 최대 230도 열 보호 효과가 있다. 광주신세계 김은석 명품잡화팀장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며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봄에는 맨살 노출이 많아지며 자외선 노출 범위도 증가한다"며 "코스메틱 페어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자외선 차단 제품을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비스포크 AI 콤보' 국내 판매 1만대 돌파

### 삼성전자 2월 출시 흥행 돌풍

삼성전자가 지난 2월 국내에 선보인 울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국내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가 출시 3일 만에 1000대, 12일 만에 3000대가 판매된 데 이어 지난 주말 1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국내 히트템프 방식 세탁건조기 시장에서 처음으로 1만대 고지에 올랐다고 11일 밝혔다. 비스포크 AI 콤보의 인기 비결로는 세탁기와 건조기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울인원 세탁건조기 제품으로 세탁물 이동 없이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번에 가능하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설치할 때보다 설치 공간을 약 40%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세탁 용량 25kg, 건조 용량 15kg의 대용량으로, 김사이즈 이불 빨래가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기반으로 단독 건

조기 수준의 건조 성능을 구현해 셔츠 약 17장인 3kg의 빨래를 건조할 때 드는 건조 시간과 에너지 사용량은 일반 건조기와 유사하다. 일반 건조기 기준으로 비교하면 삼성전자 20kg 용량 건조기의 1회 건조 시 소비전력량은 1천 989.1와트시(Wh), 연간 소비전력량은 318.3킬로와트시(kWh)로, 국내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삼성전자는 강조했다. 연간 에너지 비용 역시 5만 1천원으로 국내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06.96 (+1.80)
↓ 코스닥	858.10 (-1.23)
↑ 금리(국고채 3년)	3.466 (+0.075)
↑ 환율(USD)	1364.10 (+9.20)